

가축분뇨 액비 사용기준과 작물 재배요령

이상복 간척지농업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최근 화학비료의 가격이 올라 농가경영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에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시점에서 농경지에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가축분뇨 액비를 농경지에 흰원하면 작물에 양분공급, 토양 비옥도 증가 및 토양생물의 활성유지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필요량 이상으로 사용하면 작물이 웃자라 쓰러져 수량감소와 품질저하는 물론 생산기반인 토양과 수질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사용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 전 작업

사용할 액비는 충분히 부숙되어 냄새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악취가 많이 나면 부숙이 덜 된 것으로 충분히 부숙시켜 사용한다. 부숙된 액비는 살포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성분함량을 분석해야 한다. 한편 액비를 살포할 논·밭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 분석하고 작물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는다.

가축분뇨 액비 사용량 결정

가축분뇨 액비는 질소성분이 높고, 질소 무기화율이 화학비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액비 중 질소성분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결정한다. 인산이나 칼리 기준으

$$\text{액비 사용량(톤/10a)} = \frac{\text{토양검정 질소총량(kg/10a)}}{\text{액비 중 질소(T-N) 함량(%)}} \times 100 \div 1,000$$

로 사용하면 토양오염은 적으나 작물생육에 효과가 저조하여 액비살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액비사용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밑거름 양이 질소총량의 50%이면 액비 사용량에 0.5를 곱하여 밑거름 양에 대한 액비량을 계산한다.

액비 살포량은 농업기술센터에 보급되어 있는 조견표를 참조하여 작물별로 시비처방서상의 질소총량에 해당하는 액비량을 찾아 살포량으로 한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시기와 살포방법

농경지에 액비살포는 살포기를 이용하여 전면에 균일하게 살포한다.

살포시기는 논의 경우 이앙 15일 전에 사용해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사용해야 한다. 청보리 재배의 경우는 벼 수확 후 곧바로 파종해야 하므로 수확 직후 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액비

는 가급적 민가에서 100m 이상 격리된 지역에 사용하고 살포 후 바로 경운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액비시용 포장에서 작물의 생육이 부진한 경우에는 화학비료로 웃거름으로 하고 액비 과다사용은 생육초기 헛가지(무효분蘖)가 증가되고, 웃자라기만 하므로 적성 사용량 내에서 살포해야 한다.

저농도 액비(SCB)를 이용한 벼와 청보리 재배

최근 새로 개발한 SCB액비는 살포시 악취발생이 거의 없으며, 인산함량이 낮아 토양 중 인산축적 우려가 없어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서도 재배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SCB액비 이용 벼 재배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논을 경운한 후 물을 대고 로타리를 이용하여 논을 평평하게 고른다.

밀거름용 액비는 총량의 70%를 논 전체에 골고루 살포한다.

액비살포 후 2일 이내에 로타리로 잘 섞어 써레질을 하고 이앙을 한다.

벼 생육 중 나머지 액비 30%는 논 마르기 후 이삭 형성 초기에 논물과 함께 흘러대기를 한다. 이때 액비 30%가 모두 흘러 들어가면 논물을 멈춰야 한다.

만약 논에 논물이 적을 경우 액비 중 비료성분이 논토양에 흡착한 3~4일 후에 논물을 보충한다.

한편, 논의 청보리 재배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습해우려가 없는 청보리 재배가 가능한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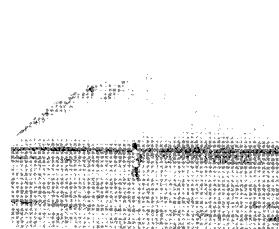
지를 선정하여 밀거름용 액비를 총량의 50%만 사용한 후 5cm 이하로 얇게 로타리를 한다.

로타리 작업은 이미 발생한 뚝새풀을 방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때 만약 깊게 로타리를 하면 습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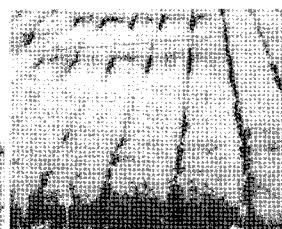
파종은 1단보(990m²)당 20kg 수준으로 하고 곧바로 배수로를 2~3m 간격으로 설치한다. 웃거름용 액비 50% 사용은 땅이 얼지 않은 2월 말에서 3월 초순 경이 알맞다. 만일 토양이 과습할 경우에는 화학비료로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청보리 수확은 황숙초기인 5월 중하순경이 알맞다. ⑥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녹색기술 2009년 12월호>



▲ 마른 논 액비살포



▲ 액비 사용량에 따른 청보리 생육 비교



▲ 이앙 전 SCB 액비살포



▲ 가축분뇨로 큰 대형호박 탄생



▲ 논물과 함께 SCB액비 흘러대기(이삭형성 초기)

